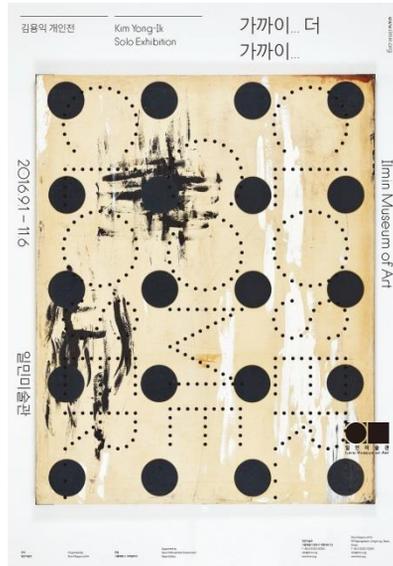


김용익 개인전 '가까이... 더 가까이...'

September 12, 2016



'가까이... 더 가까이...' 전시 포스터
(사진제공 : 일민미술관)

일민미술관(관장: 김태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김용익 개인전 '가까이... 더 가까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용익이 처음 작업을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 2015년까지 작가의 40년 작업 여정을 모두 아우른다. 전시는 굵직한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한 작품을 통해 작가가 자기 자신, 미술,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1전시실에는 김용익이 작업을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작품이 전시되며, 2전시실에는 작가의 전성기인 1990년대 대형 회화 작업이 소개된다. 3전시실은 자신의 작업을 반성적으로 점검하는 태도가 두드러지는 <관 작업> 시리즈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주요 작업이 전시된다. 많은 변화를 거처온 작업의 여정을 스스로 정리하는 형식의 신작들과 함께, 작가의 지난 40년을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아카이브를 선보인다.

일민미술관 책임 큐레이터 함영준은 "이번 김용익 개인전은 한 미술가의 작품 세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역사적 개인으로서의 미술가를 드러내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미술의 흐름에 가까이 다가가는 전시"라고 전시의 의의를 설명했다.

전시 외에도 작가의 작품세계와 그를 둘러싼 시대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도록이 발간되며 미술평론가, 작가, 큐레이터와의 대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일민미술관 홈페이지(ilmin.org)와 SNS(www.facebook.com/ilminmuseum)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